

1 보험의 기원

지난 5월 중국(中國) 쓰촨성(四川省)에서 21세기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10여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또한 3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치고 4,5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1,500만 명이 살던 집을 잃었다. 이 같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보험(保險)이다.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내 사고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보험은 언제 생겨났을까? 보험은 인류가 생겨났을 때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것이다. 초기에는 돈을 내지 않고 큰일이 일어났을 때 직접 가서 도와주는 형태였다. 예컨대 집에 불이 났을 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도와 새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불이 났을 때는 이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도와준다.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기고

• 보험(保險)은 삶의 든든한 '동반자'

글 · 정해균
아시아투데이 경제부 기자

동반자

지금으로부터 4000~5000년 전에 고대 중국과 바빌로니아에서는 위험을 나누거나 줄이는 시도가 이어졌다. 중국에서는 물살이 거친 곳을 왕래하는 도자기 상인들이 배가 뒤집혀졌을 때 생기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도자기를 여러 대의 배에 나누어 실었다. 또 기원전 1750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성문(成文)법인 함무라비 법전에는 '불의의 재해로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상부상조하는 구제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다. 당시 해상무역에 나섰던 상인들은 항해가 끝났을 때 물건을 사는데 돈을 댄 사람에게 물건값에 돈을 더 얹어 줬었다. 이것은 풍랑 등으로 인해 배에 실은 물건이 없어졌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사전약속에 대한 대가였다. 로마시대에는 결사·조합으로 컬리지엄(라틴어 col-

legium 콜레기움)이 있었다. 빈민의 매장을 위한 상조조합, 청소년의 체육훈련을 위한 단체, 퇴역병 클럽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국가나 도시의 공적 조직과는 별도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 이들은 공통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구성원 간 친목과 상호부조도 돈독히 했다.

중세 서유럽의 길드에서도 상호부조, 즉 보험의 개념을 찾을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시작된 '모험대차제도'는 근대적 손해 보험의 모태가 됐다. 이는 해상·육상의 무역업자가 금융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이자 이외에 오늘날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위험부담 비용을 부과하는 대신 사고로 인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모험대차제도'는 이후 14세기에 해상보험, 17세기에 화재보험으로 발전했다.

이탈리아 항구도시에서 성립된 해상보험은 영국에 도입돼 로이드(Lloyd's) 보험조합을 기반으로 번성했다. 로이드는 원래 템스 강가에 위치한 커피하우스였는데, 무역상과 선원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해상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 유명해졌다. 이곳에서 교역 자금을 대주는 사람과 뱃사람들을 중개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로이드는 보험조합으로 발전했고, 현재는 약 2만 명의 보험인수자를 거느린 거대 보험조합이자 보험의 대명사가 됐다.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계 상해 자동차 항공보험 등 새로운 영역의 손해보험 상품이 개발됐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이보다 훨씬 늦은 18세기에 나타났다.

로마시대에는
빈민의 매장을 위한 상조조합,
청소년의 체육훈련을 위한 단체,
퇴역병 클럽 등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국가나 도시의 공적 조직과는
별도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
이들은 공통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구성원 간
친목과 상호부조도 돈독히 했다.

2 우리나라 보험계약 1호 주인공은 '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신라의 창(倉), 고려의 보(寶), 조선의 계(契)라는 상호부조제도가 있었다. 또 조선시대에는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약(鄉約)'이 있어 사람이 사망하거나 불이 났을 경우 모두가 분담금을 나눠 고통을 분담했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보험이 도입된 것은 1887년 강화도조약 이후다. 인천 부산 등 항구 개항에 따라 일본 영국 등 외국 보험사가 해상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업의 시초는 일본사람에 의한 것으로 제국생명이 인천에 대리점을 설치한 1891년이다. 순수 우리 자본에 의한 보험회사는 1921년 10월 설립된 조선생명보험이고, 순수 우리 자본에 의한 최초의 보험회사는 1922년 10월 설립된 조선화재보험이다. 당시 농업 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있는 보험대상은 소와 가옥, 농토 등이었다. 특히 소는 1897년 우리나라 보험계약 제1호의 주인공이다.



3 화재보험 가입, 사고예방 지름길

보험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험의 대상이 '사람(人)'인가 '물건(物件)'인가에 따라 나누는 것이 대표적이다. 人보험은 생명·신체에 대해 발생하는 생명보험이고, 物보험은 재산이나 물건에 대해 발

생하는 손해보험이다. 손해보험 중 대표적인 것이 주택, 공장 등 화재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화재(火災)보험이다.

가장 오래된 보험 상품 중 하나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과 보험계약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비(非)특수건물'로 구분된다.

특수건물은 1971년 서울 대연각 화재사고로 168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의무화되었는데,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다수인이 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이 그 대상으로 공제회가 아닌 손해보험사 보험 상품에 들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전국에 2만 823건, 11만 2,851동의 특수건물이 있다. 공장이 1만 759개로 가장 많고, 16층 이상 아파트(3672개), 11층 이상 건물(1,891개), 국유건물(1,641개), 시장(1,024개) 등의 순이다.

그런데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지난해 1년간 전국의 특수건물 2만 3,000여 건에 대해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음식점의 방화시설이 가장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시설 양호율은 아파트가 94%로 가장 높았고 11층 이상 건물과 공연장, 국유건물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주요 건물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화재보험 가입은 화재사고 발생 시 보험금만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험가입 전에 보험목적물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잠재위험을 파악하고 다양한 위험관리기법을 검토, 최적의 위험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보험가입 후 지속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화재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의 무료 화재 안전점검 시 소화설비할인검사를 실시해 소화설비가 우수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 경우 화재보험 가입 시 3~60%의 요율을 할인해주고 있다. 한편,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일반적인 아파트를 예로 들면 1억 원 상당의 건물과 5,000만 원 상당의 가재도구에 1년간 위험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료 수준은 3만 원을 넘지 않는다.

4 가입·납입기간 등 꼼꼼히 살펴야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보험도 재테크가 필요하다. 가급적 한 살이라도 어려서 가입해야 같은 보장을 받더라도 내는 돈이 적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보험가입을 위한 일곱 가지 행동요령을 추천하고 있다.

* 보험 종류 반드시 확인

모든 보험은 상품명 뒤에 그 종류가 명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이면 '00연금보험'이라고 쓰여있다. 영어와 전문용어를 섞어 아무리 제목이 길어도 상품명 중에서 보험이라고 나와있는 앞 글자만 읽어보면 어떤 보험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단거지 축성보험을 원했는데 '연금보험'이라면 무조건 잘못됐으니 정확히 따지고 넘어가라.

* 보험기간과 납입기간 확인

흔히 만기라고 하는 개념이 보험기간이다.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말하는데 당연히 보험기간보다 짧거나 같게 되어있다. 납입기간이 반드시 만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만기가 정해진 보험은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종신형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은



특수건물은

1971년 서울 대연각 화재사고로 168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는데,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다수인이 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이 그 대상으로 공제회가 아닌 손해보험사 보험 상품에 들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중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가족보장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전체의 42.3%에 불과하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보장'에 대해서는 의외로 준비를 적게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중요한 보장부터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수준보다는 다소 모자란 만큼을 채워주는 기능을 한다. 무리한 가입은 '중도해약'이라는 아픔을 주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냉정히 따져야 한다.

* 보험사에 알릴 내용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청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청약서에는 가입자의 건강상태와 직업 등에 대해 질문하는 질문표가 있다. 이 질문은 보험가입 승낙 여부, 보험료와 보험금액 결정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성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질문 란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 보험사고와 관련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계약서류와 회사 안내장을 챙겨라

혹시 아는 설계사 앞에서 속이 좁고 소심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걱정스럽겠지만 보험은 한 번 계약으로 20~30년, 아니 평생을 가늠할 만큼 따질 것은 철저히 따져야 한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사항은 회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보내오는 계약 안내장은 계약내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반드시 읽어보는 습관을 갖자. 꼼꼼히 읽어서 손해 볼 것 없다.

죽을 때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명시되지 않는다. 예컨대 '10년 납·80세 만기'라면 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하는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본인의 연령이 80세까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 수익률 따지려면 보험보다 펀드 가입해야

수영선수도 각자 주 종목이 있듯이 금융상품도 각자 주된 기능이 있다. 은행은 저축, 증권은 투자라면 보험은 위험보장이 주된 기능이다. 수익률을 따지자면 그 어떤 보험도 은행의 저축상품이나 증권사의 펀드보다 나올 수 없다. 대신 은행과 증권사는 보장성이 없다.

* 얼마 받는지보다 얼마 내는지 따져야

적은 보험료로 충분한 보장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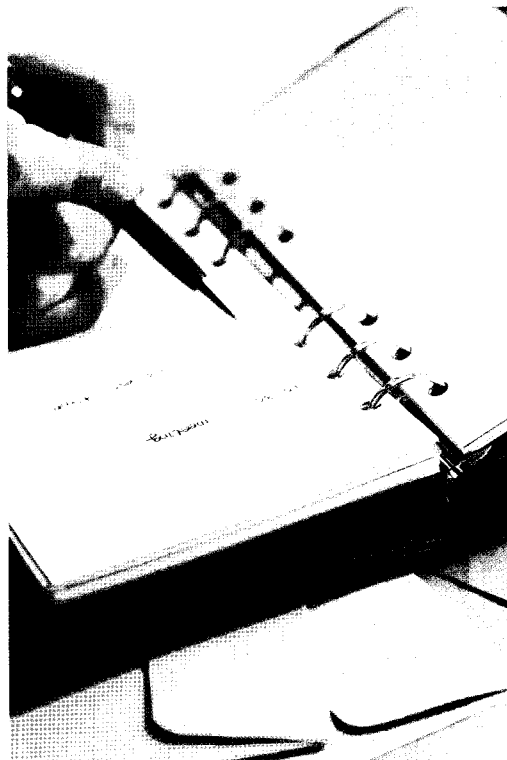
* 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보험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는 청약서 부분 뒷면에 인쇄돼있는 청약철회신청서에 해당란을 기재하고 보험회사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5 내 나이에 딱 맞는 보험 고르기

생명보험협회가 만든 2006년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률은 89.2%에 달할 정도다. 또 가구당 보험가입 건수도 4.2건에 이른다. 수치로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의 미래를 위해 보험을 통해 꽤 많은 준비를 해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가족보장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전체의 42.3%에 불과하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보장'에 대해서는 의외로 준비를 적게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중요한 보장부터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위험에는 크게 조기사망과 장기생존, 질병과 상해 등이 있다. 이 중 어떤 위험부터 대비할 것인가



지에 대한 기준은 '그 위험이 가족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냐'가 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경제에 가장 큰 위험이 되는 것은 가장의 조기사망이다. 주 수입원인 가장의 조기사망은 가족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처럼 가장 사망에 대비해 유가족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종신보험료 규모는 월 소득의 10~15%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며 장기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변액 종신보험 등 주식에 일정부분을 투자하는 상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 다음은 연금보험 등을 통한 노후 대비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노후대비는 당장 급하진 않지만 미루다 보면 치명적인 위험으로 커질 수 있다.

사망과 노후 다음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은 질병과 상해다. 즉 노년기의 치매 및 장기간병에 대비하기 위해 실버보험 또는 장기간병보험 등으로 미리미리 만약의 경우를 준비해놓아야 한다. 가입이 늦어지면 보험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을 뿐더러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50대에는 상속설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종신보험 등으로 상속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에 맞추어 종신보험금을 확보하기 위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끝으로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장순위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부터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배우자, 자녀 순으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조기 은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 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다고

모든 보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내게 어떤 보장이 필요하고

가입목적은 어떤 것인지 고려한 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6 보험도 '리모델링'이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는 기본적 경제원칙은 보험에도 적용된다. 같은 크기의 보장이려면 보험료는 적어야 하고, 같은 보험료라면 보장은 커야한다. 이 같은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 리모델링(Remodeling)이 있다. 보험 리모델링이란 현재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한 분석과 진단으로 보험료 거품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을 해약하면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불필요한 계약은 과감하게 해약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험 리모델링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만기일자와 남은 보장기간이다. 먼저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기간이 짧은 보험은 장기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장기간이 끝나고 재가입하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저렴할 때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20대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대부분 30대에 끝난다. 단체보험이나 암보험도 60~70세 이전에 끝나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80~90세까지 보장되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둬야 한다. 암이나 주요 질병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확률이 높아지고, 나이가 많을 때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또 만기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보험료 인상요인이나 나이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만기 이전에 새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몇 개월분 보험료를

더 물더라도, 10~20년간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 번째는 보장범위다. 20대에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암보험이 만기가 됐다고 똑같은 보장으로 기간만 연장해서는 안 된다. 20~30대에 상해보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40대 이후엔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성인병이나 노령화에 따른 수술 입원 치료비 등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CI(치명적 질병)보험 또는 LTC(장기간병)보험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셋째는 만기 보험금과 새로운 보험료의 문제다. 통상 만기 보험금이나 리모텔링 후 해약 환급금을 받게 되면 뜻하지 않은 폭돈으로 간주해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보험은 보험으로 대체해야 한다. 만기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을 다른 곳에 쓰지 말고,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 일시납으로 넣어두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가계의 재정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새로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내용도 훨씬 충실하게 설계할 수 있다. 보험료보다는 보장이 우선이다. 보험료 수준에 맞춰 보장내용을 정할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최대한의 보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납입기간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일시납과 월납의 형태로 재구성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만기보험의 리모텔링은 반드시 '종합적 보장'이 확보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조기 은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 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한다고 모든 보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내게 어떤 보장이 필요하고 가입목적은 어떤 것인지 고려한 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보장의 우선 순위, 보장금액, 보장기간과 범위, 보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매년 연말엔 반드시 가계의 수입과 지출증감에 따라 연례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7 급전 필요하면 '약관대출' 노크

가족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등 급전이 필요할 때면 흔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은행 신용대출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너무 높아 부담스럽다. 은행 대출도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면 돈을 제때 빌릴 수 없다.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을 찾아야 하고, 자칫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럴 때 자신이나 가족이 가입한 보험이 1~2개라도 있다면 보험사 문을 두드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상품들은 해약환급금(중도해지 시 받을 수 있는 돈)의 최고 95%까지를 계약자에게 빌려주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을 해약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환급금 범위에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보증이나 담보가 필요 없다.

특히 카드대출이나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계약 대출받은 돈을 다른 고금리 단기 금융상품에 활용할 수도 있어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또 변액연금보험이나 유니버설보험 등 일부 보험에서는 해약환급금의 최고 50%까지를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수시로 빼서 쓸 수 있는 중도인출제도도 있다. 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을 해도 보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